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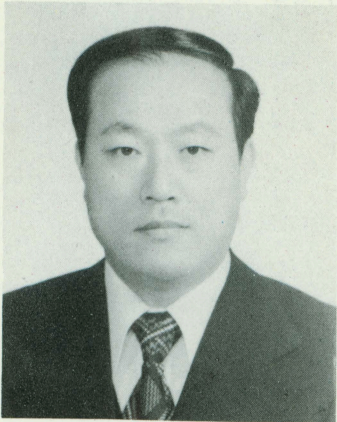
義城 가마싸움

제2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83. 10. 21~23 안동시민운동장



경 상 북 도

人事말씀



菊香 그윽한 豐饒로운 季節 文化의 달을 맞아 鄉土文化를 啓發하여 愛鄉心을 鼓吹하고자 이곳 慶北 安東에서 베풀어지는 第24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에 義城“가마싸움”이 出戰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民俗藝術은 人類文明의 原形이자 現代文明의 母胎로서 自然과 欣然히 合一하여 이웃과 한몸이 되고 흥과 신명이 있으며 高度로 整齊된 해학과 익살이 있는 傳統文化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傳統文化에 對한 높은 矜持와 깊은 理解를 가지고 옛 것을 오늘에 되살리며 그것이 열이 되고 힘이 되어 生活의 創造能力으로써 살아 움직여야만 世帶의 흐름에 따라 文化의 꽃을 피우고 알찬 열매를 거두어 길이 後世에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에 紹介하게 되는 義城“가마싸움”은 음력 8月 秋夕날 書堂學童들이 유다리(남덕교) 넘어 廣場에서 “힘과 지혜”를 겨루던 傳統的 겨루기 놀이입니다.

이러한 種目を 全國에 紹介할 수 있는 機會를 갖게 된 것을 320萬 道民과 함께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 祭典이 祖上의 열과 슬기를 오늘에 되살리고 飛躍하는 民族의 雄志를 일깨우는 文藝振興의 起爆劑가 되어 고장 자랑이 나라 사랑의 原動力이 되기를 衷心으로 期待하는 바입니다.

1983. 10. 20

1. 사회적 환경

의성군 의성읍은 경상북도의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사통 팔달로 트인 교통망을 통하여 대구까지는 72km, 안동까지는 32km의 거리에 자리잡고 있다.

일찌기 고려시대에는 안동대도호부의 한 속현이었다가 조선시대에는 현령이 집무하였고, 그때나 지금이나 학향으로 이름 나 있어 특히, 명인·열사·충신·효자·효녀의 배출향으로서 명성이 있다. 주민은 주로 농업으로 생계를 삼아 왔으며 지극히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그 강한 전통적 기질과 더불어 전형적 경북도민의 품성을 지니고 있다.

풍속면에서는 성인층의 ‘줄당기기’ ‘박수싸움’이 세세년년 베풀어진 외에 8월 추석날 한낮에 벌어지는 소년들의 ‘가마싸움’과 야간에 거행되는 부녀자의 ‘기와밟기’ 등의 놀이가 오랫동안 전승되어 왔다.

2. ‘싸움’의 유래

의성 고유의 민속놀이인 ‘가마싸움’은 일명 ‘가매쌈’이라고도 하며 발생 연대가 확실치 않으나 1906년경까지 해마다 놀아왔으니 서당 학동들이 음력 8월 추석날 유다리(남덕교) 넘어 광장에서 힘과 지혜를 겨루던 전통적 겨루기 놀이이다. 의성의 중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아시거랑(아사천)을 경계로 하여 남북촌의 학동들이 각각 한 편이 되어 무리를 이루



어 싸운다. 의성읍에는 서당이 비교적 많았으나, 그 흥망성쇠가 무상하여 1906년경에는 다섯 군데의 서당이 있었다. 아시거랑 남쪽에는 봉강서당, 성무청서당, 삼일제서당, 향청서당이 있었고, 북쪽에는 학동 수가 많은 덕록서당이 있어서 이들 학동들이 훈장이 추석맞이 귀향한 틈을 타서 바퀴 달린 가마와 기치를 만들고 외는 호창까지 준비하여 유다리 근처에서 겨루며 싸우는 것이다.

3. 시기, 장소, 인원



음력 8월 보름날 한낮에 논다. 의성읍의 중심을 흐르는 아시거랑에 무지개꼴로 된 돌다리가 놓여 있고 이 다리를 경계로 하여 남북촌의 학동들이 부딪혀 싸우는 것이다. 싸움의 준비는 8월 13일경부터 놀이도

구를 손수 제작하고, 완성되면 14일부터 기치를 들고 가마를 이끌어 동네를 두루 돌아다닌다. 보름날 오전까지 그렇게 하다가 한낮이 되면 싸우기 위하여 유다리 근처로 접근하게 된다.

남촌의 네 개 서당의 학동들이 모이면 60~70명이 되고, 북촌의 덕록서당 학동들이 60~70명 정도되었으니 그 인원이 130명 가량되었고 때로는 서당에 다닌적이 있는 소년들까지 합세하기도 했다하니 그 수가 늘 일정하지 않았다고 하겠다.

4. ‘싸움’ 의 도구

추석이 가까와지면 창호지를 여러 겹으로 발라 가마를 만들고, 손재주가

있는 학동이 나무바퀴를 만들어 달고, 가마 네 모퉁이에는 밧줄을 한 발 정도 길이로 매어 전후좌우로 끌 수 있도록 한다. 각종 깃발은 창호지에 물을 들여 글씨를 쓰고 대나무에 꽂아들게 된다. 영기(令旗), 청도(淸道)기, 청룡(靑龍)기, 백호(白虎)기, 주작(朱雀)기, 현무(玄武)기 및 수기(帥旗)를 만드는데 수기에는 영남대도독 수군병마절도사어사사명(嶺南大都督水軍兵馬節度使御史司命)이라 쓰고 끈을 늘어 두 학동이 잡게 되니 수기를 세 사람이 잡는 셈이 된다.

5. '싸움' 내용

'가마싸움'의 쟁투적 겨루기는 8월 14일경부터 시작된다. 영기가 앞서고 이어서 청도기, 청룡기, 백호기, 현무기가 두 줄로 서며, 다음에 수기가 서고 공격군인 머리꾼, 그 다음에 가마가 따르며 동내를 주유하게 되고, 기세를 올리는 호창을 하게 된다.

앞에 가는 마부, 어이야
 뒤에 가는 마부, 어이야
 니 말 좋다 자랑 마라
 내 말 좋다 자랑 마라

동내를 몇차례나 주행 행군하고 이윽고 추석 당일이 되면, 학동은 명절부장 그대로 서서히 유다리 근처로 접근하고, 상대방은 유다리를 건너오지 못하도록 방어태세를 갖춘다. 유다리 위에서 양군의 머리꾼들이 밀고 밀리다가 승부 가름이 나지않으면 곧 아시거랑을 사이에 두고 격렬한 팔



매싸움이 벌어진다. 팔매싸움은 원래 결정적인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므로 양군은 곧 가마를 끌고 그 견고성과 위세를 나타내려고 애쓴다. 가마를 서로 부딪혀 보기도 하고 스쳐 지나기도 하며 허장성세를 벌이다가 다시 본진으로 돌아가서 개문진, 멍석말이 등의 진법을 펴며 적의 공격에 대비하거나 공격태세를 취하여 쳐들어가려 한다. 이러한 진법은 제갈량의 팔진도법을 모방하였다고도 하나 어린 학동들이라 갖추어진 것이 아닌 듯하고, 한식경이리하다가 마침내 머리꾼들의 박수싸움이 벌어진다. 박수싸움은 팔장을 끼고 적을 밀어젖히는 것인데 한편의 힘이 약하여지면 자연 전체가 밀리게 되고 그러노라면 적진을 뚫고 전진하여 가마를 파괴하러 달려드는 것이다. 가마는 호위군과 깃발을 든 군사가 호위하고 있다가 적군의 침투를 방어하는데 상대방의 가마보다 먼저 파괴되면 싸움에 패하게 되는 것이다.



상대편 공격군은 가마 주위를 빙빙돌면서 멍석말이 공격을 시도하며 적을 어지럽게 한다.

이윽고 한편이 적의 가마를 파괴하면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깃발과 파괴된 가마를 노획하여 본진으로 돌아와서 수비군과 더불어 마을로 개선하게 된다. 싸움에 패배한 쪽은 다시 도전하려고 하나 기치와 가마도 없고 사기가 죽어 마을로 물러나게 된다. 개선하는 연도에는 남녀노소 관중들이 박수로 마중하고 때로는 농악까지 들고 나와 환영했다고 한다.

이 가마싸움이 해마다 아동놀이로서 격렬하게 놀아진 이유는 승리한 쪽의 서당에서 그해 과거에 참방하는 자가 많이 나온다고 믿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출 연 자 명 단

남				북			
마을	담당역	성명	성별	마을	담당역	성명	성별
의성중학교	가마물이	차훈일의 3명	남	의성중학교	가마물이	권덕중의 3명	남
"	기수	윤기동의 22명	"	"	기수	정하우의 22명	"
"	공격군	신대경의 59명	"	"	공격군	양승욱의 59명	"
"	수비	최한용의 24명	"	"	수비	김대석의 24명	"
"	농악	이기우의 12명	"	"	농악	이승인의 12명	"

지도교수 : 권 영 철 효성여자대학교 교수

김 택 규 영남대학교 교수

최 정 여 계명대학교 교수

총 지도 : 김 재 형 의성중학교 교장

지 도 : 공 진 호 의성중학교 교사



의성을 구봉산 말봉에 위치한 聞韶樓



금성면 개일휴게소(약수로 유명)